

미네르바 N제

윤 리 와 사 상

저자

- 강승철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2019,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50점
- 조언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재학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50점

검토자

- 박정민 건국대학교 철학과 재학
- 방지유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재학
- 신승준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재학

머리말

강승철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교과서와 평가원 기출문제, 당해년도 EBS 연계교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러 학습 자료에 담긴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개념이 섞인 사설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윤리 과목은 공부할수록 헛갈리는 과목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미네르바 N제는 기존 평가원 기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원의 결을 최대한 살리려 하였습니다. 미네르바 N제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과 주요 개념을 꼼꼼히 복습한다면,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번 출판을 비롯하여 제 삶의 궤적에 그려진 크고 작은 성과들은 소중한 인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김성용 선생님과 정재연 선생님, 윤리라는 과목에 흥미를 갖게 해주신 김윤정 선생님, 깊이 있는 수업으로 윤리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주신 김봉진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전부이자 이유인 동생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조언

변변찮은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한 지가 어언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대학생의 신분으로, 어엿한 도서의 형태로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머리말을 읽고 있다는 것은, 수능 4연속 1컷 50점을 목도하고도 윤리와 사상을 골랐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된 길에 박수를 보내며, 부디 사상가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항상 만점을 목표해야만 하지만 변변찮은 콘텐츠가 없어 고통 받는 윤리와 사상 선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윤리와 사상을 한 번 더 공부하는 N수생들은 이 시기에 풀 만한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다채로운 160문항이 여러분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게 참된 교사상을 보여주신 이현노 선생님,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 눈을 뜨게 해 주신 정대회 선생님, 제가 가는 길을 항상 응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7
II. 서양 윤리 사상	35
III. 사회사상	71
IV. 부록: 2022학년도 수능특강 제시문 선별	95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 날개를 편다

01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端)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나에게 있는 네 가지 단을 모두 넓히고 채우면 불이 비로소 타오르고 샘이 비로소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을 채우면 진실로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채우지 못하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 ① 인(仁)의 단인 측은지심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다.
- ②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착한 본성을 기르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③ 사람은 모두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 ④ 네 가지 단[四端]을 가정에 적용하면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다.
- ⑤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지(良知)는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다.

02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마음속에 있는 인의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인(大人)이다. 반면 인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른다면 곧 소인이다.

을: 예(禮)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일에 예가 없으면 이루어짐이 없다. 군주가 예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킬 따름이다.

· 보기 ·

- ㄱ. 갑: 예(禮)의 실마리는 겸손히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다.
- ㄴ. 을: 예를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
- ㄷ. 을: 사람은 배움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 ㄹ. 갑, 을: 사람들을 예로써 교화한 이후에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3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선한 네 가지 마음[四端]을 확충하여 네 가지 덕[四德]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을: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른다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예(禮)를 배워 그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 보기 ·

ㄱ. 갑: 사람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을 가진다.
 ㄴ. 을: 사람이 본성을 높이는 것은 스승과 법도가 없기 때문이다.
 ㄷ. 을: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제정한 예법(禮法)에 따라 살아야 한다.
 ㄹ. 갑, 을: 사람이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성(性)을 알면 하늘[天]을 알 수 있게 된다. 내 몸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입이 좋은 맛을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의 인(仁), 군신 사이의 의(義) 등이 성이다.
 을: 성(性)과 위(僞)는 다른 것이다. 사람의 성은 타고난 것이므로 배우거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는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은 성이고, 배고파도 어른을 위해 사양하는 것은 위이다.

· 보기 ·

ㄱ. 갑: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욕구도 인성(人性)으로 보아야 한다.
 ㄴ. 을: 사람의 성에는 생존하려는 욕망과 이기적 욕구가 포함된다.
 ㄷ. 을: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성에 존재한다.
 ㄹ. 갑, 을: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마음[心]은 곧 이치[理]이다. 이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곧 천리인 것이니, 어찌 마음과 이치를 구분하여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겠는가? 마음 밖에는 이치도 사물도 없는 것이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하며 이미 움직인 것과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은 본성이 되고, 이미 움직인 것은 정(情)이 된다. 이를 “마음은 본성과 정을 아우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 보기 ·

- ㄱ. 갑은 양지(良知)가 마음의 본체이며 천리(天理)와 같다고 본다.
- ㄴ. 을은 마음을 바르게[正] 하는 격물(格物)으로써 앎이 실현된다고 본다.
- ㄷ. 을은 이(理)와 기(氣)가 오직 인간만이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도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에 따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나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면 사회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절에 바탕을 둔 교도(敎導)가 필요하다.

- ① 사람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므로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는 동등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사람의 본성[性]은 악하지만 노력[偽]을 통해 선행을 할 수 있다.
- ④ 사람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정(性情)을 확충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⑤ 성인(聖人)은 타고난 본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

미네르바 N제

윤 리 와 사 상

해설편

1	⑤	2	②	3	④	4	③	5	②
6	③	7	②	8	④	9	③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⑤
16	③	17	①	18	③	19	②	20	⑤
21	②	22	③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⑤	28	⑤	29	②	30	②
31	③	32	④	33	③	34	④	35	③
36	①	37	⑤	38	④	39	④	40	②
41	②	42	④	43	②	44	②	45	③
46	②	47	①	48	③	49	③	50	③
51	②								

01 맹자의 사상 이해

문제 Comment

맹자에서 정치사상 빼고 다 넣은 문제이다. 4번에서 가웃하고 넘어갔다가 5번이 확실해서 답으로 찍게 되는 문제.

제시문 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네 가지 선한 마음,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며, 마음에 사단이 없다는 것은 몸에 사지(四肢)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는 사단을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를 잘 봉양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정치에 적용하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⑤ 맹자는 양지를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이라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맹자는 측은지심을 인의 단(端)으로 보며,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보았다.
- ② 맹자는 존심양성(存心養性), 즉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착한 본성을 기르는 것을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 ③ 맹자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네 가지 단[四端]을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를 잘 봉양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본다(제시문 해설 참조).

02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이해

문제 Comment

생긴 것도 이쁘고 내용도 좋은 문항. 이제는 사단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각각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할 듯하다.

제시문 해설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선하며, 인의예지의 사덕과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의 사단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옛 성인이 제정해 놓은 예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보며, 이것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 된다고도 보았다.

정답 해설

- ㄱ. 맹자는 겸손히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이 예(禮)의 실마리[端]라고 보았다.
- ㄷ. 순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오답 해설

- ㄴ. 순자는 욕망은 절제하고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도 없다.
- ㄹ. 맹자는 유향산 유향심을 주장하며 먼저 백성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백성을 교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03 맹자와 순자의 본성론 비교 이해

문제 Comment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자의 예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왕이 제정하는 것임을 알자. 기출 문제의 제시문을 선지로 차용하기도 한 문제이다.

제시문 해설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단을 근거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사단을 확충하여 인의예지의 덕을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해설

- ㄱ.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지닌다고 보았다.
- ㄴ. 순자는 사람이 본성을 높이는 것은 스승과 법도가

없기 때문이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맹자와 순자 모두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위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오답 해설

ㄷ. 순자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제정한 예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제정한 예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04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이해

문제 Comment

지업을 메꾸보는 의미로 부담 없이 풀어보면 좋을 듯하다.

제시문 해설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 도덕 감정인 사단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존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사람이 본성상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는 존재라고 보며, 인간의 본성을 예로써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ㄴ.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생존에 대한 욕망과 이기적 욕구라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ㄹ. 두 사상이 모두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ㄱ. 맹자는 욕구로는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없어 욕구를 성이라고 보지 않았다.
ㄷ.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05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이해

문제 Comment

만만한 문제는 아닐 터이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각 사상가에 따라 달라지는 격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가 포인트. 기출에서 한 번씩은 짚었던 주제들이다.

제시문 해설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설을 주장하며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주희는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고 보며, 이미 드러난 마음을 정,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

을 성이라고 보았다.

정답 해설

ㄱ.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가 양지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보았다.
ㄹ. 왕수인과 주희 모두 궁극적으로 지와 행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ㄴ. 왕수인의 격물에 대한 설명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다.
ㄷ. 주희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06 순자의 사상 이해

문제 Comment

순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뭔가 그럴듯한 선지들이 몇 개 보일 것이다. 아울러 순자 사상의 핵심인 예(禮)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자.

제시문 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아, 그 본성을 그대로 둔다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스승과 법도에 따라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해설

③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며,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육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면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순자는 예(禮)를 통해 사람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순자는 유교 사상가이므로, 준비친소를 구분하는 사상을 주장하였다.
④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고 보아, 사람이 선하게 되려면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순자는 성인과 일반 사람들의 본성은 다르지 않으나, 성인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위(僞)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07 맹자와 공자의 통치론 비교 이해

문제 Comment

무난한 문항이다. 다만 맹자는 민본주의를 주장했지,